

지역 소식통

정읍시,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시민에 공개

정읍시는 2023년도 항공사진(해상도 25cm)을 '정읍시 생활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는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정읍 일대가 촬영된 17개 연도의 항공사진을 제공받아 데이터를 구축·제공해 시민 누구나 정읍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분할 기능을 활용해 1966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항공사진 비교, 로드뷰 기능, 연속지적도 및 도로·도시계획도면 등을 중첩 서비스해 시민에게 공간정보의 활용 기회를 넓히고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사용방법은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정읍시 생활공간정보' 검색 또는 주소창에 주소(https://webgis.jongup.go.kr)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성내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순항'

고창군이 성내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공정을 40%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주 건축물의 벽체·기둥·슬래브의 철근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됐고, 이달 하순까지 설계기준강도 확보를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양생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성내면 복합문화체육센터는 국비 등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민들로 조직된 추진위원회(위원장 오세진)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거쳐 추진됐다. 이 사업을 통해 체육관, 헬스장, 동아리실, 북카페, 빨래방 등 연면적 1302㎡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지상1층)가 건립된다.

면 지역 주요거점에 복지·문화·체육분야의 기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낙후된 농촌지역의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시 경쟁력·책임행정 실현”

심덕섭 고창군수, 임기 후반기 조직개편 단행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가 임기 후반기를 앞두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책임행정 실현'에 주요업무를 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고창군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원안 통과됐다. 이로써 심덕섭호 출범이후 2번째 조직개편이 완성됐다.

이전 조직개편은 '대한민국 최초'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의 보물 7가지를 보유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관광산업과'가 '세계유산과'로 명칭을 바꿔 세계유산을 보존·관리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유산 전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소관 팀명 역시 세계문화유산팀과 세계자연유산팀의 명칭을 각각 고인돌유산팀과 갯벌유산팀으로 바꿔 명확한 팀명 체계를 갖췄다.

또한, 각종 전라사업 등으로 도시개발 업무가 급증하면서 기존 '건설도시과'의 업무가 각각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과'로 분리됐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터미널도시 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 '고창(호남권)드론통합지원센터',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총괄하며 도시공원, 주거복지, 교통 등을 종합해서 다룬다.

임시조직으로는 농촌활력과에 김치산업육성 TF팀을 신설하여 '사시사철 김치원료 산업의 메카 도약'을 목표로 김치원료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는 청년스마트팜 TF팀을 신설하여 청년농 임대형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입주 청년농의 사후관리 및 스마트 시설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까지 담당하게 된다.

특히 심 군수는 기존 군정조직을 2국(자치행정, 농어촌산업)에서 3국(관광복지, 농어촌산업, 안전건설)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취임 후반기를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행정의 집중도를 끌어 올려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 해양수산과 소관부서로 '어업지도팀'이 신설돼 지역 어업인들의 안전과 올바른 어로 행위를 지도·감독하게 된다. 청소년시설팀 역시 새롭게 만들어져 청소년시설과 각종 여가시설을 통합 관리·운영하며 효율성을 극대화 시켰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고창군 조직은 기존 2실 1정책관 1과 2국 13과 2직속 2사업소 14읍면 190팀에서 1실 1정책관 1과 3국 15과 2직속 2사업소 14읍면 190팀(-1실, +1국, +2과)으로 개편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 전라사업들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한 최선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도 군민들의 삶을 촘촘히 챙기는 정책들에 대한 속도감을 더하고, 민생 현장 소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맞춤형 폭염 대책 본격 추진

정읍시, 시민 안전 위한 그늘막 66개소 설치·운영 특보 시 얼음생수 및 각얼음 비치 등 선제적 대응

정읍시는 올여름 폭염 일수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상황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등 총 3개반 13명으로 구성된 폭염 TF팀을 운영해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폭염 대응사항을 전파하는 등 종합 상황관리에 나선다.

또 여름철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보행자가 많은 사거리 등 시내 곳곳에 스마트 그늘막(온도 15℃ 이상, 풍속 7m/s 이하 가동) 7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66개소의 그늘막을 운영한다.

더불어 냉방기기가 구비된 무더위쉼터 305개소를 지정하고 사전에 냉방기기 점검을 완료했다. 무더위쉼터에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급함과 생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보 발표 시 야외 무더위쉼터 등 시내 주요 구간에 얼음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각얼음을 비치해 시민들의 체감 온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와 각종 폭염피해 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고령 어르신들의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해 무더위쉼터 점검, 한낮 비닐하우스 및 영농사업장(논밭 등) 예찰 등 철저한 대비로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화수 시장은 "기록적인 폭우와 살인적인 폭염 등이 지속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온이 높은 한낮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삼가하고, 폭염 대비 건강수칙 준수 등 개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체육 꿈나무, 미래 국가대표로 거듭나길”

이화수시장,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자 응원 및 격려

이화수 정읍시장은 지난 16일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이하 소년체전)'에서 입상한 선수·감독을 초대해 축하하고 격려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남 목포시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제53회 소년체전에서 정읍 선수단은 정읍서초등학교 핸드볼 선수단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도 대표로 선발된 검도 진현욱(정읍중), 바둑 노가은(샘고을중) 선수도 각각 2, 3위에 랭크됐다.

이화수 시장은 "제53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선수 여러분에게 축하를 전한다. 메달 색은 다르지만 선수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은 동일하게 값지고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정읍을 빛



이화수 정읍시장은 지난 16일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이하 소년체전)'에서 입상한 선수·감독을 초대해 축하하고 격려했다.

낼 수 있는 미래의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며 시에서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카톡(SNS프로필) 사진촬영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현규)가 지난 14일부터 14개 읍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선물하는 '찰칵! 나의 청춘 프로필'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14일 고창읍과 고수면을 시작으로 7월 26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매주 금요일 실시된다.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고창군 사진작가협회 회원들

의 재능 기부를 통해 어르신들의 멋진 모습을 액자에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찰칵! 나의 청춘 프로필'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된 고창군 지정기탁금을 전도받아 추진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지난 17일 백산면 금관리 논콩 파종 현장을 방문해 농가를 격려하고 농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안군수, 농번기 영농현장 방문 소통행정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지난 17일 백산면 금관리 논콩 파종 현장을 방문해 농가를 격려하고 농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논콩 농가 이요섭(47)씨는 올해 처음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 비닐을 이용해 파종함으로써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고 수분을 유지하면서 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고품질 농작물 생산과 증수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은 농번기 안정적인 인력 지원을 위해 소규모 농가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농촌일손돕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해 농촌인력증가센터, 유관기관과 협조해 인력 부족으로 시름에 잠긴 농가에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한창 비번 농번기에 무리한 농작업으로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농기계 사고에도 각별의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군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